

제 6 장 코스모폴리턴 환대 : “공동체 없는 이들을 위한 공동체” 를 향하여.

April 16, 2016 / 최희숙

A. 주제:

낯선이에게 환대를 베푸시오 - 바울

실존이란 “함께” 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 장 토크 랑시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종교적’ 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코스모폴리턴 환대” 를 통해 성찰해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해 보자.

B. 문제점 :

1. “우리는 환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자크 데리다는 말하고 있다. 이 표현속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편견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주고있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사고할 수 있다. 데리다를 비롯한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언어 개념의 끊임없는 해체와 재정립은 어느선에서 다수의 공감과 인식의 변화를 얻을수 있는 것인가.
2. 개인적 환대와 국가적 환대 사이에는 갈등과 딜레마가 존재한다. 개인적 환대가 국가적 환대의 벽에 부딪혔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C. 논점 :

1. 종교인이란 누구인가. -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과 책임.

- 1) 연민적 시선 : 연민은 함께 고통함. 방해 받는 타자와의 관계속에 책임과 어두운면을 끌어 안는 것.
- 2)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제도화된 교리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연민의 시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 3) 종교적이란 의미는 모든 인간이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 책임, 환대를 실천하는 것.

2. 우리는 환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 1) ‘환대’ 의 문제는 언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언어 문제는 한사람의 존재론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 2) (모국어 사용자 = 주인 = 주체= 지배하는 권력) vs. (외국어 사용자 = 손님 = 상대 = 통제받는 자)
- 3) “우리는 환대가 무엇인지 알지못한다.” 는 말속에는 ‘환대의 대상은 누구이며, 환대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물음이 담겨있다. 진정한 환대는 주인과 손님의 경계긋기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 4)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 사이의 틈이 존재하는 한 온전히 환대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 5) 환대는 구체적 상황에서 독특하게 경험되는 사건(event), "지식"너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다.
- 6) "알지 못함"의 차원은 환대의 의미를 몇가지 형태로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극소화 하기 위한 중요한 발상이다.
- 7)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계가 그어진다. 파악불가능의 영역 측면을 열어놔야한다.
- 8) 진정한 환대는 언제나 아직아닌, 우리의 이해력 너머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다.

3. 환대의 두 축 : 환대의 정치와 환대의 윤리

- 1) 환대는 사회정치적, 정치적, 척학적, 종교적 논란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 2) The Law – 절대법 – 무조건적 환대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 – 정의 – 해체불가능
- 3) Laws – 실정법 – 조건적 환대 – 시대적 공간적 제한/역사성 – 문화 사회적 특정 사건 – 해체가능
- 4) The Law 와 Laws 의 관계 : 보다 나은 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의"는 해체될 수 없다.

4. 개인적 환대와 국가적 환대 : 갈등과 딜레마.

- 1) 환대 의미의 왜곡
 - a. 자본주의 내의 환대 :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환대로 왜곡. 호텔, 상점..
 - b. 개인적 환대로 의미가 축소될 때 낭만화된 환대, 개인화된 환대로 왜곡된다.
 - c. 불평등 하고 위계적 의미로 왜곡 : 국가에서 왜곡하는 경우. 예) 1793 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환대 증명서" – 프랑스인 주인과 외국인 손님의 불평등한 관계가 명확히 설정.
- 2) 국가는 통치권력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규제하고 통제할수 있다.
- 3)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윤리적, 정치적 행위이다.
- 4) 개인적 환대(사적 환대)와 국가적 환대 (공적 환대)에는 큰 벽이 존재한다.
- 5) 현대사회에서 환대는 '국가'와 '주인'과 '손님'의 3 자 구조 속에 있다. 이는 환대가 낭만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5. 호스티피탈리티: 환대- 적대의 복합적 얽힘성.

- 1) 현대사회에서 환대와 적대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적대' (hostility) + '환대' (hospitality) = "호스티피탈리티" 두개념이 포함, 동시에 일어날수 있다.

EX) –아브라함의 이야기 – 남성의 환대를 위해 , 동시에 희생되는 여성.

–롯의 이야기 – 손님의 환대를 위해 두딸을 내어줌. Subaltern/절대적 희생자로서 희생되는 여성은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구약성서속 이야기는 시대적 특성을 정제하고 읽어야 한다.

- 문제는,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절대적 상황으로 해석되어져 여전히 강요되거나, 묵인되거나, 용인 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6. 코스모폴리턴 환대.

1) **얼굴의 환영으로써의 환대** : 얼굴은 인간적 만남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기 쓰기보다 선행한다. 독특하고 개별적인 “얼굴”은 인간의 존엄을 담고 있는 개인의 상징으로써 코스모폴리턴의 권리와 정의의 적용이 뿌리내리는 근원이다.

2) **예수적 환대와 코스모 폴리턴 시선** : 현대사회에서 환대의 의미는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예) 삭개오 이야기 : 진정한 환대, ‘바라봄’과 ‘자기 초대’를 통해 시혜자와 수혜자가 위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홀연히 넘어서는것.

3) 코스모폴리턴 환대 : 공동체 없는 이를 위한 공동체

- 공동체를 상실한자, 난민, 디아스포라의 삶이 운명지어진자.
- “고향을 떠나라” 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의 삶, 손님의 삶으로 들어가 이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타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 타자의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심오한 의미.
- 환대는 편안함의 해체다.
- 인간은 신학적, 존재론적으로 그 누구도 자신이 거하는 영토나 공간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인간은 이방인이다.

“환대 신학”

-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의 거리 좁히기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상기.
- 환대의 윤리와 환대의 정치,법 사이의 거리를 낙담이 아닌 “소명”으로 인식.
- 전적인 긍정과 책임을 상기.

D. 평가 :

이론적으로 다가갈때 “무조건적 환대”란 가능할법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무조건적 환대”란 과연 어느만큼 확장 될 수 있을지 언제나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하지만 유토피아적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은 꿈꾸는 자들이 결국 변화 시켜왔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것을 창조하시고 “좋다” 라고 긍정하셨다. 모든 존재, 모든 상황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변화는 오는 것이고 그런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해체하고 경계를 허무는 작업의 과정속에 많은 잃어버렸던 본질적 해답들이 발견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함이, 그리고 본질적 사랑이 확산되길 기대한다.